

##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서

이 경 열

1-2 이하경 아빠

**“아이들이 먼저” 라는 소신으로 아이들과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지평선으로 아이를 보내고자 결심했을 때도 그랬듯이, “아이들이 먼저”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부모위원 입후보로 자원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개개인의 가치관과 살아온 인생들에 따라 그 목표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물질제일주의와 우리사회가 억지스레 나누어 둔 보이지 않는 계층의 계단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꿈과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희망과 바람을 담아 아이의 지평선 입학을 응원하였고, 앞으로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렇게 커나가기로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평선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입학 이후 보아온 교직원 분들의 열정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에 아이를 보낸 부모로서, 운영위원 입후보로 나선 한명으로서 저는 그러한 학교와 교직원 분들을 믿고 응원할 것이며, 뒤에서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길목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 역시 학교를 더 큰 그릇으로 키워내고 아이들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크고 작은 고비와 성장통을 겪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모님의 수보다도 많은 다짐과 크고 작은 바람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두 담아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집에서 멀리 김제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마흔 명의 아이들을 얻은 기쁨과 마흔 가족의 부모님들을 새로 친구로 얻은 듯 든든하다는 맺음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짧은 소견을 갈음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2017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운영위원에 신청한 지평선고등학교 3학년 강민희아빠 강필성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12월23일 지평선축제 때 5시간30분 동안 사회를 보았던 아빠입니다.

이제 누군지 조금 기억나시죠.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부모로서 활동을 해왔던 과정을 적어봅니다.

광양 용강초등학교 운영위원 1년

광양 옥룡초등학교 운영위원 3년 및 운영위원장 3년

강진 공립특성화대안중학교 청람중학교 운영위원 2년 및 학부모회장 2년

현재 광양교육희망연대 대표

현재 전남무지개학교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고 학교운영에 문제가 많아서 관심갖고 부모님들과 시작했던 학부모 활동이 오랜만에 기억을 더듬어보니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네요.

혹시 제가 궁금하시면 옥룡초등학교나 청람중학교를 검색해보시면 학교의 분위기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23일 제게는 눈물이 흐르는 날이었습니다.

민희가 2년 동안 저에게 했던 말

“아빠 동생학교에 신경 쓰는 만큼 지평선고에도 신경 좀 써줘”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던 무책임한 아빠

“너희 학교는 학교 설립도 오래되었고 대안학교이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아빠는 신설학교인 동생학교에 더 신경 써야 돼”

지평선고 2년이 다되어가던 날 그때서야 민희의 말 아니 지평선에 다니는 우리 아들 딸들의 말과 글이 얼마나 진실인지, 깊은 상처인지 알게 되어 못한 아빠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입학식날 민희를 데려다 주면서 딸에게 약속 했습니다.

올해는 “너희들을 위해 뭐라도 할게”라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영위원 신청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거창한 변화의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소통하는 지평선, 학생과 교사가 존중받는 지평선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눈물이 아닌 웃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 지평선고 3학년 강민희아빠 강필성

## 지평선 중고등학교 운영위원 입후보 소견

반갑습니다.

지평선고등학교 3학년 서지원, 지평선중학교 2학년 서현호 아빠 서용진입니다.

지원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지평선학교의 구성원이 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호 때문에 최소 7년은 지평선학교 구성원으로 확정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오랜 기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래 되었기에 학교에 대한 애착과 정이 누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선생님들의 희생과 봉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왔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지평선학교의 학부모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작년 여러 가지 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평선학교 운영위원에 입후보 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2017년 우리 지평선학교는 차분하게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구성원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온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은 한발 뒤에서 학교, 학생, 선생님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안학교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일반 학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평가하는 것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칫 우리 학교의 가치를 훼손하여 우리가 지평선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안의 가치를 지키는 지평선학교 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모두가 지평선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 가득할 수 있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 후보 중3 김지훈 아빠 김영노입니다.

따뜻한 별이 겨우내 여뻤던 옷깃을 열게 만드는 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평선학교와 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위원 후보로 지원하고 나서 문득 우리아이가 입학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가고 싶은 학교를 합격한 것만으로 마냥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다사다난 했던 2년을 지내고 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부모로서 저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평선학교에 보내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제일 많이 사용 했던 단어가 '자력'과 '소통'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 두 단어가 잘 협력 되어야 우리아이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까지 점차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의심과 불신, 분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위원으로 나온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다시 초심의 '자력'과 '소통'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 몇몇, 우리 반, 우리학년만이 아닌 지평선학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 시작의 일례로 지난 일요일 각 학년대표, 반대표, 총무들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는 학년만의 모임이었지 전 학년 대표들이 함께 한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소수인원의 시작이지만 점차적으로 선후배 학년을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의란 회의에 올라 온 안건 하나하나에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속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학부모위원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부지런히 운영위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실함으로 때로는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로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지평선학교가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도움과 귀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평선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후보자 소견서

정 현 정 (지평선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반장선거 이후로 후보 등록하고 소견을 발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를 정(正)자 몇 개로 마무리되는 선거가 아닌 이런 거창한 자리가 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못했기에 소견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잘하는 것인지’ 오랜 시간 고민과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대안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사, 학생, 지역주민, 학부모 몇 분이 참여한 간담회 형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처음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 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대안학교에 보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저도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서...’ 대안학교의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 에 제 나름대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학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지평선의 혼란과 소통의 어려움이 매우 가슴 아프지만, 지평선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원칙이 모두 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과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나름의 애쓰는 과정이라 생각 합니다. 이를테면, 힘을 모아 산에 함께 올랐는데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 아무튼 저는 제가 나름대로 약속했던 ‘참여’ 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평선의 가족으로 그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 모습 중에 한곳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거울을 통해 마주보게 되는 ‘얼굴’ 인데요, 학부모는 아이들의 거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고 싶은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제가 지평선의 가족구성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며, 그 이야기의 통로 역할을 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아직 한 번도 일을 해본적은 없어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울 순 없지만, 작고 소박한 삶,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의미를 진하게 나누는 대화와, 공동체생활을 복원하는 길을 찾자는 지평선의 첫 마음을 지켜내서 우리 모두가 자력을 지닌 지평선의 건강한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부모운영위원 입후보의 소견을 밝히며 마칩니다.

## 입후보 소견서

성 명 : 정 우 영

학생성명 : 정 재 학 (고1)

지평선고등학교 2017년도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 지원한 신입생 정재학 아빠  
정우영 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지평선학교를 자세히 알아가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저 학교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런 벅찬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권유했더니 관심 있게 듣기 시작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아이는 제게 와서 말합니다. 아빠 도전 해 볼게요 라고요

아이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6년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 놀랄 수 밖에도요. 이처럼 지평선고등학교는

두 부자에게 설레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 이어 제가 지평선고등학교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군산경포초 4년, 군산제일중 3년동안 운영위원의 경험과 그 중 2년의 운영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더욱 큰 설레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큰 설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가지 재료가 필요 합니다.

첫째는 소통이고

둘째는 행복 입니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이 하나가 되어 소통이 잘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거라 자신 합니다.